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2년 5월 보도자료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=0403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I 대한민국,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메카로 시동을 걸다

– 제1차 「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」 운영위원회 개최 –
– 공동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운영체계 확정 및 성공적 허브 구축방안 논의 –

☞ **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란?**

- 코로나19 전세계 유행(팬데믹)으로 지역별 백신 생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, 세계보건기구(WHO)는 생산시설 건립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전 세계 지역별 백신 생산 거점을 마련 중이며,
- 백신 생산 거점에 대한 인력 공급을 위해 백신·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'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'로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 지정

■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(목) 오후 3시 30분 세계보건기구(WHO)와 제1차 「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(이하 'WHO 인력양성 허브'」 운영위원회(Executive Committee)를 영상으로 개최하였다.

○ 한국은 지난 2월 WHO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지정되었으며, 이후 세계보건기구와 총 4차례 준비회의를 통해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.

○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, WHO 아카데미*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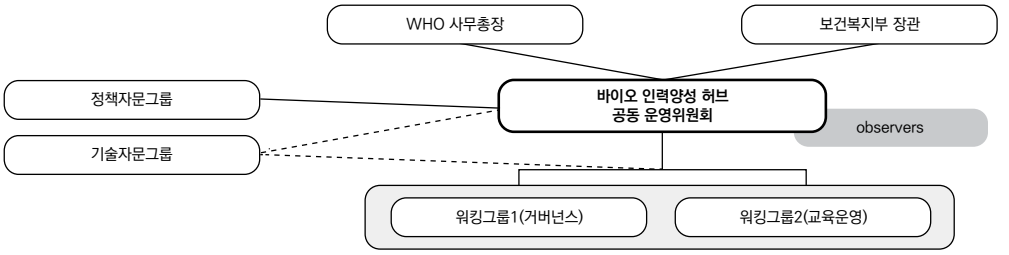
* 세계보건기구가 전세계 의료종사자, 정책입안자, 공중보건 종사자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목표로 설립한 교육기관(프랑스 리옹 소재)

■ 이번 EC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○ 첫 번째 안건으로 WHO 인력양성 허브 운영체계를 공식화하였다. 운영위원회는 교육운영,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마련 등 허브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,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이강호 단장과 세계보건기구 수석과학자 수미야(Dr. Soumya Swaminathan) 박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.

* (기타 위원명단) 국제백신연구소 제롬 김 사무총장(Dr. Jerome Kim), WHO 아카데미 대표 아그네스 박사(Dr. Agnès Buzyn)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, 정책자문그룹 대표(미정), 기술자문그룹 대표(미정)

〈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운영체계〉



○ 자문그룹은 정책자문그룹과 기술자문그룹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. 정책자문그룹(SAG : Senior Advisory Group)은 교육 수혜국과 글로벌 NGO 등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, 허브 운영 방향 제시 등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며, 기술자문그룹(TAG : Technical Advisory Group)은 백신·바이오 생산공정 및 교육공학, 규제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. 현재 세계보건기구와 위원 위촉을 논의 중이다.

○ 또한 허브 운영을 위해 WHO와 보건복지부 실무자를 중심으로 워킹그룹도 분야별로 구성하였다. 재원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, 교육운영, 커리큘럼 개발 등 허브 운영을 위한 실무계획을 수립·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.

■ 두 번째 안건으로 2022년도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.

○ 올해 한국은 WHO 인력양성 허브로서 중·저소득국 백신·바이오 생산인력 370명과 국내 인력 140명, 총 510명에 대해 총 3가지 교육과정을 진행한다. 한국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위해 작년부터 글로벌 바이오 교육과정을 준비해 왔다.

〈 2022년도 운영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계획 〉

① (6월, 9월) 아·태지역 대상 바이오 생산공정 실습교육(8주, 60명, ADB 교육비용 부담)

② (7월) 백신·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(이론 2주, 중·저소득국 110명/국내 40명)

③ (10월) 백신·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(이론 3주, 중·저소득국 200명/국내 100명)

○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백신연구소(IVI) 주관으로 7월 18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'백신·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'의 교육생 신청현황 등 준비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.

○ '백신·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본교육'은 바이오 생산인력을 위한 입문 과정으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, 백신 전임상 및 임상, 품질관리 교육 등이 진행되며, 국내기업의 백신 생산시설 견학도 이루어질 예정이다. WHO 인력양성 허브 전담 교육훈련 기관으로 구상중인 '글로벌 바이오 캠퍼스'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론교육 및 생산시설 견학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.

○ 교육은 아프리카, 아시아, 중남미 등 33개 중·저소득국 인력 110명 및 국내인력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, 현재 세계보건기구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교육생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.

■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와 보건복지부는 허브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, 교육프로그램 개발, 글로벌 협력체계 마련 등 허브 안착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나가게 될 것이다.

○ 이를 통해, 중·저소득국 백신 생산을 지원하고, 항체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중·저소득국 접근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전 세계 건강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■ 보건복지부 이강호 글로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"한국의 '세계보건기구 인력양성 허브' 지정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리더로서 전 세계 백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, 한국이 백신·바이오의약품의 국제적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"이라며,

○ “세계보건기구와 긴밀한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 허브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. 19465.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, 2022.5.12.

Ⅱ 한국과 아세안, 보편적 의료보장과 보건안보 협력 논의

– 이기일 제2차관 제1차 한-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등 참석 –

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.15(일)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차 한-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9차 아세안+3(한·중·일)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보건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■ 제1차 한-아세안 보건장관회의는 2019년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보건의료 분야 대화채널 구축을 합의한 이후 개최한 첫 번째 회의로,

○ 향후 격년마다 개최하며 올해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다.

○ 올해는 ▲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(UHC)*과 ▲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을 위한 보건안보를 주제로, 한-아세안의 미래 보건 분야 협력을 논의하였다.

* 보편적 건강보장(UHC, Universal Health Coverage):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예방 및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으로, 제64차 세계보건기구(WHO) 총회 시(2011년 5월) 결의안 채택

○ 이기일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, 일차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등 경험을 케이(K)-Health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고,

-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각국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(UHC) 달성을 위해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

하였다.

- 특히, 「세계보건기구(WHO)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」선정을 소개하며,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.

○ 아울러, 아세안 회원국의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신속한 실험실 진단체계, 긴급상황실 운영, 현장 역학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언급하며,

-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역내 보건안보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.

■ 이기일 제2차관은 같은 날 열린 제9차 아세안+3 보건장관회의에도 참석하여,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을 위한 아세안과 중국, 일본 및 한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○ 각국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인력, 필수의약품, 의료물품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필요성에 더욱더 공감하고, 이를 위한 각국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였다.

○ 한국은 바이오 인력 양성 계획과 함께 항체치료제 개발, 한국 최초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계획 등 의료 자원 공급체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계획*을 소개하는 등,

* '20년부터 3년간 약 10억 달러, '22년 약 5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

- 한국의 경험과 정책사례가 아세안+3 공동체의 자원 활용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
■ 이날 회의는 한-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과 아세안+3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형태로 정리되어 채택되었다.

○ 공동선언문에는 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의 미래 보건 협력 강화 의지가 담겼다.

○ 특히 이번 회의를 개최한 부디 구나디 사디킨(Budi Gunadi Sadikin)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이번 회의가 회원국 간 보건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히며,

-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과 등을 언급하여 이와 관련한 소중한 경험을 아세안과 함

께 나눠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- 또한 당면한 감염병 대응,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공중보건위기에 손을 맞잡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.

■ 아울러,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, 한국과 인도네시아 보건부 간, 한국과 미국 보건복지부 간 양자 면담을 진행하고*, 양국 간 보건의료분야 관심사를 재확인하며 협력관계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.

* 미국은 아세안 관련 회의체 회원국은 아니나, 최근 미국-아세안간 보건의료협력 강조 필요에 따라, 특별히 미국-아세안 보건장관 회의 세션에 초대됨

○ (한-인니 양자면담) 5.15(일) 이기일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보건부 부디 구나디 사디킨(Budi Gunadi Sadikin) 장관은 인도네시아 현지 의료 투자, 제약업체 등 진출 등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, 함께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.

- 부디 사디킨 장관은 한국의 선진적 의료 및 바이오 기술을 언급하며, 인도네시아에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진출하고 제약, 의료기기업체 등 바이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를 희망하였다.

○ 이기일 제2차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며,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현지 진출하거나 계획 중인 한국 보건의료 기업*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언급하였다.

* SD바이오센서, SK플라즈마, 대웅제약, 종근당 등

- 한편,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참여와 함께, 올해 10월 말 개최할 세계 바이오 서밋에 인도네시아측의 참석을 요청하고, 부디 사디킨 장관은 반드시 참석할 것임을 약속하였다.

○ (한-미 양자면담) 5.16(월) 이기일 제2차관과 미국 보건복지부 로이스 페이스(Loyce Pace) 차관보가 만나 양국 간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관련 대응을 위해 꾸준히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CDC 동아시아 지역 센터 관련 유치 의사를 전달하고, 아울러 올해 10월 말에 있을 세계 바이오 서밋에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도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.

- 이에 루이스 차관보는 CDC 유치 관련 한국의 의지를 확인하고, 바이오 서밋 개최 등 백

신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의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언급하며, 앞으로도 한미 간 동맹관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.

■ 제2차 한-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+3 보건장관회의는 우리나라와 라오스가 공동의장국으로서 2024년 라오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. 19469.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, 2022.5.17.

Ⅲ 「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」 시행으로 정부·기업이 근로자 건강 책임진다

–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 및 온라인 사업설명회(5.20.~31.) 개최 –

(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)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,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(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)

■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(원장 조현장)이 올해부터 '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'를 본격 시행한다.

■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'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' 도입을 위해 지난 3년간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마련과 함께 기업 현장방문을 포함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인증체계 및 지표 검증 등을 실시했다.

○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,908시간으로, OECD 평균(1,687시간)보다 2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,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약 한 달(27.6일)을 더 근무하고 있었다.

○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무는 신체활동 부족, 비만 위험 증가 등 건강 위협 원인이 되므로, 근무환경 속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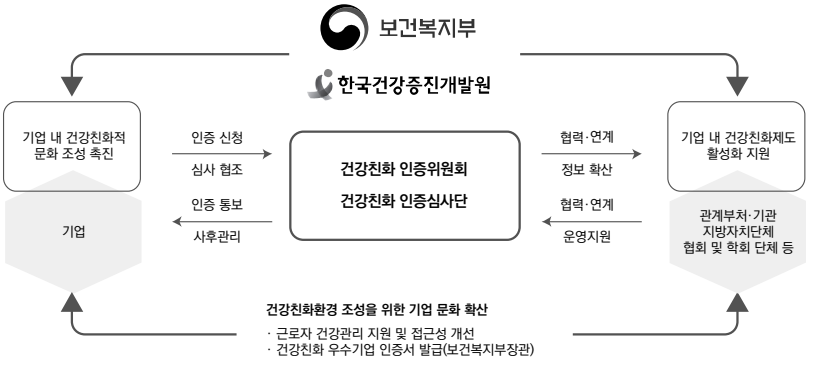
○ 이에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·노력하는 기업을 발굴 및 확대하고자 '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'를 마련했다.

■ 제도 시행에 따른 첫 단계로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,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.

○ 5월 20일(금)부터 31일(화)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(www.khealth.or.kr/hfwp)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설명회 기간 동안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, 학계 관계자,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

○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1일(수)부터 15일(수)까지 설명회가 진행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 후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는 전자우편(healthfriendly@khealth.or.kr)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신청방법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〈건강친화기업 인증 운영 체계〉



■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은 인증 심사(서류 및 현장평가), 심의·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.

○ 건강친화기업은 대기업(공공기관 포함), 중견기업(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)과 중소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고,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.

-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법적 최소기준은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건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, 총 11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.

○ 심사는 건강친화경영, 건강친화문화, 건강친화활동,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되며, 기업 규모별·인증 유형별 지표를 차등 구성하여 지표별 척도에 따라 산출된 최종 점수가 인증 통과기준 이상이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받게 된다.

- 건강친화경영 부문에서는 기업의 건강친화제도 추진 기반 및 경영진의 의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며, 건강친화문화 부문에서는 기업 내 건강친화문화가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, 그리고 건강증진활동 부문에서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.

- 직원만족도 부문에서는 신청기업의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친화제도 시행에 대한 만족도가 온라인으로 측정되어, 제도 실수혜자의 직접적 체감도가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.

○ 최종적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선발된 우수기업의 경우 정부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로서 기업홍보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.

- 인증기업은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또한, 현재 개발 중인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을 향후 신청기업 및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.

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“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건강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과 사회, 근로자가 상생하는 제도가 될

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"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 사업에 앞서 우리 원은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체계 및 지표에 대해 검증하고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."라며,

○ "제도를 통해 '근로자의 건강이 기업의 미래'라는 생각이 기업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."라고 전했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. 19470.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, 2022.5.17.

Ⅳ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– 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–

■ 보건복지부는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0일(금)부터 6월 29일(수)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.

■ 이번 개정안은 희귀·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'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'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.

○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〈 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원 〉

■ 희귀·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하여 「의료기기법」 제15조의2*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,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. (안 제10조제1항제3호)

* 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

○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'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(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)'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,

○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이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.

◈ 주요 희소·긴급의료기기 종류 및 국내 공급가('22년 기준)

- (종류) 심폐수술용혈관튜브·카테터, 혈관용스텐트,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, 카테터 삽입기,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
- (공급가)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(475만 원), Surfacer(316만 원), Begraft Peripheral(220만 원) 등

〈 개인정보보호 범위 명확화 〉

■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하였다. (안 제25조제1항)

○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, 국민건강보험공단,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하여,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.

■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
○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(수)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

○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(홈페이지) (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"입법·행정예고 전자공청회"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〈의견 제출방법(우편)〉

○ 제출처

- 주소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4층,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
- FAX: (044) 202 - 3983

○ 기재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
- 성명(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 보고자료」, 19474.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, 2022. 5.19.

Ⅳ 환자와 소통하는 스마트병원을 시작합니다!

– 2022년도 환자중심 소통 분야 스마트병원 착수보고회(5.20) 개최 –

■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(금) 오전 10시 서울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「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」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, 수행기관(4개 연합체)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.

○ ‘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사업’은 정보통신기술(ICT)을 의료에 활용하여,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이다.

○ 단기적으로는 병원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·효과성 제고와 동시에 환자와 의료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,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며,

-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병원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 생태계 선순환 고리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.

■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병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(총 18개)를 지원한다.

○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의료진 소진(burn out), 병원 폐쇄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, ‘감염병 대응’ 3개 분야*를 지원하였으며,

* 원격 중환자실, 스마트 감염관리, 병원 내 자원관리

○ 2021년에는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병원서비스 혁신 디자인을 개발하고자, ‘환자 체감형’ 3개 분야*를 지원하였다.

*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, 스마트 특수병동, 지능형 업무지원(Workflow)

■ 올해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와 소통을 지원하는 병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, ‘환자중심 소통’ 3개 분야*를 공모**하였다.

* (필수) 스마트 수술실, 스마트 입원환경, 환자·보호자 교육, (선택) 지역기반 의료 연계 네트워크

** (공모기간) '22.2.28~'22.3.18. (선정평가) '22.3월, (사업기간) '22.5월~12월

※ (참고) 2022.2.28.(월) 보도참고자료 「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」 공모

○ 총 15개 연합체(컨소시엄)가 지원하였으며, 사업 목표·전략, 세부계획,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4개 연합체(컨소시엄)을 선정하였다.

〈 2022년 스마트병원 연합체(컨소시엄) 구성 현황 〉

지원분야	주관의료기관	협력기관
스마트 수술실	충남대학교병원	㈜네오젠, ㈜바임컨설팅, 세종충남대병원, 대전보훈병원
스마트 입원환경	서울대학교병원	충북대병원, 동산의료원
	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	SK플래닛㈜,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, 서산의료원
환자·보호자 교육	세브란스병원	레몬헬스케어, 인포마이닝, 헤론헬스정보시스템, 미즈메디병원

○ 향후 정부는 올해 지원하는 4개 수행기관에 대해 주기적인 성과관리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.

■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3개 지원분야에 대한 수행기관별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, 스마트병원 참여 기관에 대한 현판수여식도 진행되었다.

① (스마트 수술실) 첫 번째 지원 분야는 '스마트 수술실'이다.

- 스마트 수술실에서는 집도의 및 수술 종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술실을 구축하고, 수술 전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.

- 동 분야에 선정된 충남대학교병원은 수술환자가 병실에서 수술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고, 수술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호자에게도 알려주는 환자안전 확인시스템(통합관제)을 도입한다.

· 필요한 수술재료를 자동 점검하고 청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, 보호자 대기실에서 보호자가 수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한다.

· 또한, 응급수술이 발생하면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연계된 지역병원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.

- 본 사업을 통하여 병원 종사자 업무 피로도를 경감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한편, 수술에 대한 환자·보호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.

② (스마트 입원환경) 두 번째 분야는 '스마트 입원환경'이다.

- 환자-의료진 간 비효율적 소통방식이나 불충분한 정보로 입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 불편감을 해소하는 내용이다.

· 동 분야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 주관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다.

-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 중심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입원-퇴원-재택 환경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스마트 입원환경을 구현한다.

· 스마트병실 시스템인 스마트 병상 스테이션*과 병상 사이니지** 등을 구축하여 맞춤형 정보제공과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,

* 스마트 병상 스테이션(Station): 기존에 병상에서 병동 간호사실로 나와서 의료진과 소통해야 하던 것을 병상 침대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한 시스템

** 병상 사이니지(Sinage): 병상 환자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든 정보 표시 도구

· 입원환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용 모바일 앱 기능을 고도화하며, 환자교육용 실감형 가상현실(VR) 자료를 제작한다.

· 퇴원 후 집으로 귀가한 환자는 홈케어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생체정보를 측정하여 자가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, 자가관리 정보는 의료진과의 비대면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다.

· 또한, 퇴원 후 지역병원으로 연계된 환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해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통해 서울대학교병원과 지역병원간 협진을 받을 수 있다.

-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환자가 입원 중에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자-의료진 소통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.

· 병실에 비치된 인공지능(AI) 스피커를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호출하여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며,

· 실시간 원격 영상시스템을 통해 타 병원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는 스마트 입원환경을

구축할 예정이다.

③ (환자·보호자 교육) 세 번째 분야는 '환자·보호자 교육'이다.

-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경로(입원, 외래, 응급 등), 질환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한다.
- 동 분야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세브란스병원은 산모 맞춤형 돌봄(케어)플랫폼을 통한 산모·보호자-의료진 간 소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,

· 임신 전주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, 퇴원 후에도 맞춤형 모바일 교육이 가능한 산후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.

· 이번 사업을 통해 특히 엠제트(MZ)세대 산모의 특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져 진료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- 세브란스병원은 환자·보호자 교육 분야 외에도 스마트 입원환경 측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.

· 일반 산부인과와 세브란스 병원 간 원격협진 및 진료의뢰 시스템, 고위험군 산모에 대한 재택 모니터링, 실시간 응급상황대처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.

· 특히,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모가 경미한 이상만으로 불필요하게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.

■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"올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소통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"며,

○ "수술, 입원, 퇴원 이후까지 환자를 중심으로 연결된 의료서비스가 이번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통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"라고 밝혔다.

○ 또한, "스마트병원은 전국적 확산이 중요한 만큼, 올해부터는 그간에 개발된 선도모델 중 효과가 검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확산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"라고 밝혔다.

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“그동안 환자·의료진의 만족도가 부족했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진다면, 환자 경험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보건산업 분야 발전 또한 기대된다”라고 말했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 보고자료」, 19476.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, 2022. 5.20.